

제주 '우한 폐렴' 대응 능력 낙제점

중국, 제주 관광·경유한 우한주민 9명 입국 거부 조치도, 체류중 동선 파악 못해... 기관간 정보공유도 부실 제주 체류 장기화 예상... 앞으로 증상 나타나면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한 폐렴)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유관기관간의 정보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에서 제주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 5명과 일본 여행을 마치고 제주를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중국인 관광객 4명이 26일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했다.

제주도로부터 이들의 입국거부에

다른 입도 소식을 접한 제주시보건소는 27일 이들이 투숙하고 있는 제주 시내 한 호텔로 가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고열과 폐렴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27일 담당 직원이 가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열도 없고 다른 이상도 없었다. 증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해서 돌아왔다. 또 중국인이어서 대화가 안돼 담당 직원이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해서 여행동선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통역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보건소는 29일부터 중국어 통역 전문인력 2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보건소는 우한시에서 제주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 5명이 언제 제주에 입도했는지는 물론 제주여행 동선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장 14일 동안 잠복 중에도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떠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주여행 동선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인 관광객 제주동선 파악은 필요했다. 만약 앞으로 이들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이후 조치를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를 보면 고열과 폐렴증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동선 파악을 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로 격상하자 제주도는 지난 27일부터 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최상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방역 등 예방 활동에 돌입했으나 도내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제주도에 파견된 한 직원은 우한시 관광객들의 제주체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는 지난 26일 이들 5명이 중국 입국 거부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제주시보건소와 제주도는 27일 중국 입국 거부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에서 자국 우한시 관광객 9명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의 제주 체류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정해진 주차 공간이 아닌 해안도로변에 세워 반납된 전기자전거.

강희만기자

자전거 빌려 탄 뒤 아무데나 '특특' '1인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주차 문제 심각

도 "현장확인 후 대책 마련"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이용한 개방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찾은 제주시 애월해안도로. 길을 따라가다 보니 길가 곳곳에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다. 일부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장소에 주차돼 있었으나 버스정류장, 점포 앞 공터 등 주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자전거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주변 상인 이모(33)씨는 "처음에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보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주차 장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곳저곳에 주차된 자전거들이 해안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8월부터 제주지역에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란 자전거·킥보드 등 1인 이동 수단을 이용한 공유서비스를 말하며, 현대차는 제주지역에만 전동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했다. 현대차는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비 관리 등의 운영은 제주지역 업체 두 곳이 맡고 있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 앱을 이용해 전기자전거 등에 부착된 QR코드 스캔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 사용 종료 시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이 같은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 도로나 인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자전거 등은 도로법 상 노상 적치물로 보고 강제수거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며 "현장 확인 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라며 "주차 장소 등의 문제는 사유지 공간으로 확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달 중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서울 등 국내 다른 지역도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공유서비스에 대한 주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됐다"며 "앞으로 이같은 공유서비스 사업은 꾸준히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차공간·시설 확보, 안전 장비 장착 등 행정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석기자

집 불지른 50대 자수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주택 별채에 붙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서귀포시 남원을 태흥리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붙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불화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91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대윤기자 ity9456@ihalla.com



꽃망울 터트린 복수초 29일 제주시 봉개동 절물휴양림 인근 숲속에 봄을 알리는 노란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강희만기자

지난해 제주해역 오염사고 23건 발생 기름 등 17.9kl 유출... 사고 주체 83%는 어선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20건이 넘는 해양 오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23건의 해양 오염 사고

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 물질 17.9kl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오염 사고 건수는 10건 늘었고, 기름 등 오염 물질 유출량은 43% 줄었다

지난해 전체 해양 오염의 83%는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또 오염 물질의 99%는 사고를 당한 어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어선 출입이 잦은 서귀포항에서 8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한림항(6건) 등의 순이었다.

해양 오염 사고의 주요 원인은 침수, 전복 등 해난 사고로 인한 것과

유류 운반 과정에서 조작 실수 등 부주의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사고에 의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또 제주 해역에서 환경 재난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방재 비축기지 신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2020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신년하례회

희망찬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2020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와 신년하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18:30 | 장소 | 제주칼호텔 2층 (대연회장)

- 회의순서 | 1부 | 이사회 및 정기총회 | 2부 | 신년하례회 | 3부 | 만찬
- 1부 회의참석 : 18:20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대상 : 제주대학교 동문
- 연락처 : 사무총장 문경국 010-3869-9644
사무처 T.702-3466 F.725-3450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제24대 임원

고문(前총동창회장)	김찬홍, 김창진, 김태환, 고유봉
자문위원	부만근, 김창희, 허향진, 이석문, 김대석, 문대림
회장	강지용
상임부회장	양석후
부회장(졸업회기순)	최승훈, 강덕부, 장성수, 김장영, 송정일, 김두철, 김동후, 문영돈, 송상훈, 강승진, 임문범, 김관배, 김철균, 한상엽, 김경식, 오태길, 송문자, 고봉주, 현유홍, 송창구, 김용주, 윤창원, 고영호, 이등춘, 고권진, 고경민, 안귀환, 변대근, 이인철, 현홍민, 김근선, 강성익, 유철수, 김경학, 김성훈, 문은경, 김상훈, 양준봉, 한정훈, 류성필, 한봉식, 부윤정, 김남식, 양재수, 강전애, 김영생, 김형주, 오영희, 박용모
감사	윤두호, 김민국, 이택관, 부영석, 박형욱
상임이사(학과동문회장 단과대학순)	강문중, 한인식, 홍경훈, 김수철, 현정훈, 최철식, 황정식, 이성진, 김택진, 문홍철, 라상균, 송재춘, 소대진, 정성태, 오영익, 고명문, 변수철, 양홍식, 허재석, 류성필, 김찬수, 박광석, 김민찬, 최재혁, 이종철, 김명식, 고희창, 변동필, 권윤필, 이남현, 강윤희, 이도우, 오윤희
사무총장	문경국

* 지도위원, 운영상임이사, 추천직 상임이사, 이사 명단은 지면 공개상 공고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강지용